

사역 소식 - 2023년 1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 - 카트야의 이야기

자칭 카트야라고 하는 거리의 소녀는 수년 동안 아비브 센터에 오곤 했습니다. 외모는 뛰어나지만, 매우 말랐고 약했고, 거의 먹지를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친절했고, 저희는 종종 그녀가 근처 거리에서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녀가 학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마약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화에 마음을 열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은 몽롱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비브 센터 자원봉사자들이 그녀에게 전하는 성경적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트야는 낮잠을 자려고 센터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중독자들을 매트리스 위에서 자게 했던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려갔을 때, 그녀는 그날 봉사단의 리더인 레오니드에게 유난히 맑은 눈으로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오니드, 이제 저는 끝이에요."

"왜?! 무슨 일이에요?" 레오니드가 물었습니다.

"자다가 도둑을 맞았어요."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약들 구하는 데에 엄청난 돈이 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죽임 당할 거예요.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재활 센터에 데려다 줄 수 있나요?"

레오니드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성을 수용하는 한 기독교 재활원의 관리자인 올렉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즉시 카트야를 데려갈게요!"라고 올렉이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를 위해 기도해왔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 정확히 텔아비브를 지나요." 그들은 와서 카트야를 재활원으로 데려갔습니다.

2주 후 레오니드는 올렉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카트야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려고 데려가셨어요"고 말했습니다.

슬프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주님께서 카트야의 건강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과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녀를 아비브 센터로 데려오고 상황을 정리하사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갖고 평화롭게 영원으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완전히 길을 잃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지요!

소식과 기도 제목:

브엘세바에 있는 저희 재활 센터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활원에서 환자들을 잘 돌보고 매우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해주는 빌헬름 매니저님의 노고를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저희는 20명의 신입 환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중 5명은 남아서 재활 프로그램을 계속했습니다(일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중독자 10명 중 1명만이 재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재활을 계속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입니다.) 이 다섯 명 중 두 명은 이미 프로그램을 마치고 현재 독립적으로 살면서 일하고 교회에 다니고

재활원을 방문합니다. 세 명은 아직도 2022년 이전에 프로그램을 시작한 세 명의 환자들과 함께 재활 센터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 여성 쉼터 사역에도 진전이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저희 스태프는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고 있고, 그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돌보는 여성들이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12월에 니나*는 다발성 경화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쉼터를 떠나 특별한 재활 시설로 옮겼습니다. 사회 복지국에서는 그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호스텔을 찾아줄 것입니다. 그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마야*도 5개월 동안 쉼터에서 함께했는데 막 저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계속 다니고 싶어해요. 그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저희 생각에는 그녀가 떠나기에는 너무 일러서, 언제든지 돌아와서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새로운 여인들을 보내주실 것을 기도해 주세요. 이제 피난처를 위한 여러분의 방이 있으니까요. (올해는 큰 호전이 없는) 올가의 건강상태와 제가 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브, 올가 비카스 & 아비브 미니스트리 팀



Bible Study in the Shelter



In Aviv Center



Small sweet Christmas greetings made by the volunteers' children



Rehabilitants and ladies from the Shelter in the church